

## 신이식 환자에서 발생한 직장 카르시노이드종양 1예

계명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

진규복 · 박우영 · 장미현 · 김정은 · 윤정수 · 황은아 · 한승엽 · 박성배 · 김현철

### Rectal Carcinoid Tumor in a Renal Transplant Patient

Kyu Bok Jin, Woo Young Park, Mi Hyun Chang, Jung Eun Kim  
Jeong Soo Yoon, Eun Ah Hwang, Seung Yeup Han, Sung Bae Park, Hyun Chul Kim

Department of Internal Medicine Keimyung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배 경** : 신장 이식 후 장기 생존 환자가 증가함에 따라서 면역억제제의 장기 사용에 따른 악성 종양의 발생이 이들 환자의 사망 및 이병에 중요한 원인으로 대두되고 있다. 카르시노이드종양은 위장관, 담도계, 췌장, 기관지 및 폐 등의 신경내분비 세포에서 발생하는 종양으로 이전에는 양성으로 인식되어 왔으나 점차 악성으로 간주되고 있다. 카르시노이드종양은 위장관에 발생하는 비교적 흔한 내분비종양이지만 이식 후 발생한 예의 보고는 아직 국내에서는 없다. 이에 저자들은 신이식 후 직장에 발생한 카르시노이드종양을 경험하였기에 보고하는 바이다.

**증 례** : 48세 남자 환자로 1주일 전부터 발생한 수양성 설사와 복부 불편감을 주소로 내원하였다. 환자는 12년 전 만성사구체신염에 의한 신부전으로 생체 신이식 시행 받았고 면역억제제로 시클로스포린, 스테로이드를 복용 중이었다. 내원 당시 이학적 소견상 의식은 명료하였고 활력 징후상 혈압 110/80 mmHg, 맥박 80회/분, 호흡수 18회/분, 체온 36.8°C이었다. 폐음, 심음은 특이 소견 없었고 복부 진찰하여서 특이 사항은 없었다. 말초혈액 검사에서 백혈구 8,740/mm<sup>3</sup>, 혈색소 11.5 g/dL, 혈소판 216,000/mm<sup>3</sup>이었으며 전해질 검사에서는 혈청 나트륨 138 mEq/L, 칼륨 5.5 mEq/L, 염소 105 mEq/L이었다. 혈청 생화학검사서 AST 22 IU/L, ALT 45 IU/L, 알부민 4.0 g/dL, 총빌리루빈 0.9 mg/dL, BUN 24 mg/dL, 혈청 크레아티닌 1.6 mg/dL이었으며 대변 검사는 정상이었다. 대장내시경 시행하여 항문피부선에서 5 cm 상방 부위에 직경 0.5 cm 크기의 용종이 보여 조직검사를 시행하였다. 병리조직학 소견상 비교적 균일한 크기의 종양세포들이 점막하층에 모여 있었으며 이는 국소적 둥지(nest)를 이루고 있었고 특수 염색상 synaptophysin (+), chromogranin (-) 소견을 보였다. 24시간 소변 5-HIAA는 3.5 mg이었다. 내시경초음파상 종양은 3층 (점막하층)까지 침범하고 있었으며 복부전산화단층 촬영상 S4에 저음영의 종양이 의심되었으나 octreotide scan 시행하여서는 전이 소견은 관찰되지 않았다. 양성 카르시노이드종양으로 진단하고 내시경 점막하종양절제술을 시행하였으며 그 변연부는 침범되지 않아 현재 시클로스포린 단독으로 면역억제중이며 신기능 정상인 상태로 외래 경과 관찰 중이다.